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전법 역량 강화…출가 진흥·신도 활성화 주력”

정책 수립·집행 과정 속도 기대
하반기 출가 진흥·인력 조직 집중
10개 권역 출가학교 설립 계획도
본사 포교국 정비·협의 체계 구축
MZ 맞춤 SNS 콘텐츠 개발 지속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월 1일, 30년 만에 삼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총무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특히 포교원은 포교부로 재편돼, 포교 종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조직 개편 시행 두 달을 맞아, 포교부장 남전 스님에게 통합 후 현장의 변화와 하반기 운영 기조 및 포교 종책 추진 방안을 들었다.

Q 포교원이 포교부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의 취지는 무엇인가?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의 결과로 교육과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삼원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세대가 바뀌었고,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종단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냉철한 판단 속에서 통합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고, 그 결과 일원화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체제의 장점은 계승하되 비효율적인 행정은 줄이고, 종단의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일원화 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직 큰 변화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원 체제에서 필요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내에서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되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종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종단의 전법 역량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성과 차별성이 약화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의 본질은 ‘전법 역량 강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 대한 우려는 그 안에 담긴 촘촘한 기획과 전략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조직 개편의 기조가 ‘포교 강화’에 있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하반기 주요 사업과 중점 과제는?

먼저 포교부의 새로운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출가 진흥과 포교 인력 조직화, 신도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천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 포교 조직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 법회의 현대화와 신도 교육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와 건강을 접목한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골프대회’와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신도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조직 개편 기조가 ‘포교 강화’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포교부로 이관된 ‘출가’ 관련 종책은 무엇인가?

출가상담사 지원 관리와 출가 장려 홍보 업무가 포교부로 이관됐습니다. 단순히 출가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 포교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부산, 제주 등 10개 권역별 출가체험학교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 중입니다.

또 매년 150여 명이 활동하는 군종병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청소년·청년 대상 조직과 연계해 출가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종회 출가장려특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출가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각 교구본사 포교국과의 연계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은?

교구본사는 지역 행정 체제를 총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사 내 포교국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포교국의 기능을 총무·기획·재무 등 다른 부서 스님들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전국 포교국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앙 포교 종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떤 인력이 오더라도 포교 업무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Q 포교·신도단체 조직 정비 방안과 역할은?

기존 30여 개 포교·신도단체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조직이 일원화된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포교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존 신도단체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신도 창출을 위한 전략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포교’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조계종 포교사단은 교육·활동 영역과 운영 방식을 전면 재정비 중이며, 6월 말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법단의 경우 군·경찰·병원 등 특수 영역에서 지역포교를 보완하는 역할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포교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법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포교 인력을 결집해 지역포교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Q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 전략은?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려면 이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포교부가 놓치지 않고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MZ세대는 SNS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교부에서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젊고 활기찬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캐릭터 ‘반야’ 인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콘텐츠 조회수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자뿐 아니라 일반 청년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개발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Q 어린이·청소년 포교 관련 종책은 무엇인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계층 포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법회 참여가 줄고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각 교구 포교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구본사별로 어린이·중고등부·청년회 법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시대에 맞는 법회 운영을 위해 6월 중 ‘현대화된 법회’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어 장기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Q 불교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은?

불교 크리에이터 양성은 불교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해 SNS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기 27명이 위촉됐고, 유튜버·일러스트 작가·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포교부는 템플스테이나 간담회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엔 AI 시대에 맞춘 포교 전략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육·신행공간 ‘문수원’ 첫삽

5월 20일, 문수원 착공식 거행
50평 규모 목조건물…12월 완공

조계종 대표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가 교내에 신행도량 ‘문수원’을 조성한다. 문수원은 학인스님들의 정진처이자 지역 불자들의 신행처로, 대학과 지역을 잇는 수행·포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포 중앙승가대는 5월 20일 교내 본관 옆 문수원 건립 예정 부지에서 ‘문수원 착공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월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창립과 김포학사 이전 과정을 회고하며 “문수원을 국내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오는 통합형 교육·수행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수원 건립은 총장 월우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2000년부터 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을 지낸 월우 스님은 오랜 시간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교직원과 학인스님, 지역 불자들이 함께 심신을 수련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 도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총장 취임 이후에는 지역 사찰과 사암연합회, 김포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문수원 조성을 구체화했고, 그 결실로 이날 첫삽을 뜨게 됐다.

문수원은 약 50평 규모, 목조건물로 지어진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문수·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할 예정이며, 완공은 올해 12월을 목표로 한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전통·가치 알릴 축제의 장 열린다

문화사업단, 6월 7~8일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오는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 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6월 7일 오전 11시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기획전시로는 전통 공양간과 수륙재 의례상을 재현해 사찰음식의 원형과 전통을 조명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전’과 사찰음식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전’이 대중을 기다린다. 사찰음식 장인인 18명 스님의 이야기로 구성된 특별전시도 공개된다.

사찰음식 특화사찰 8곳(금수암·동화사·백양사·법룡사·봉녕사·수도사·영선사·진관사)과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중 사찰음식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3곳(광제사·능가사·전등사)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각 지역 제철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찰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사찰음식 장인스님과 함께 체험관 대표 프로그램인 ‘사찰음식 첫걸음’, 직접 손질한 나물을 가져갈 수 있는 ‘스님과 나물 다듬기’, ‘스님과의 차명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의 단품 메뉴와 사찰음식 관련 상품 및 서적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입장은 무료이며, 사전 등록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김내영 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1차 | 6월07일~6월22일(16일간)
2차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일정 : 9월11일~9월16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9월11일~9월20일

▶ 동참금 : 34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